영역별 등급 분포 꼼꼼히 분석을

수능성적 발표 후 체크 포인트 … 모집군별 2~3개 대학 맞춤 지원

수능 성적을 받은 후 수험생은 영역별 성적을 분석하고 각 군별로 지원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그동안 지원 경향을 참고해 3개 군에 원서를 내면 된다. 논술고사나 면접 구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능시험이 등급제로 실시돼 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가중치와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비율 등 전형요강을 꼼꼼히 분석한 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논술에 올인=이번 수능에서는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논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논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한 번쯤 상향지원의 모험을 생각 할 수 도 있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논술은 대부분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고 인문계열은 물론 자연계열도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등급제로 동점자가 지난해보다 많아져 대학별 고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 논술훈련을 하고, 면접에 대비해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실전처럼 모의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모집군별 2~3개 대학 지원= 3개의 모집군별로 볼 때 한 곳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소신지원을 하고, 1곳은 상향지원, 1곳은 최대한 자신의 점수에 맞춘 안정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상향 지원 할 때는 상위권 대학은 수능 1개 영역, 중위권 대학은 2개 영역을 한 등급 위로 보고 대학을 결정하면 도움이 된다.

원서 접수 전에 모집군별로 최소 2~3개 대학을 정해 두는 것도 대학 선택에 좋은 방법이다.

◇수리 '가'형 1등급 비율=올 해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없이 영역별 등급만 표시된다. 자신이 어떤 등급에 속하고 같은 등급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몰리느냐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9월 수능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 점수가 얼마가 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편 2학기 수시등록 마감일은 오는 17, 18일이며 원서접수는 '가'군 '나'군 '가·나'군 12월 20~25일,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은 12월 21~26일이다.

정시모집 전형기간은 '가'군 12월 27~2008년 1월 10일, '나'군 2008년 1월 11~21일, '다'군 2008년 1월 22~2월 1일. 합격자 발표는 2008년 2월 1일.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원어민 교사·외국어 연수·영어캠프 성과

전남 중·고생 영어 실력 매년 향상

전남 중·고등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신장과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한 '영어능력 검정표창제'에서 2003년부터 매년 우수학생 선정 기준점이 올라가는 등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00점 이상의 우수학생이 197명으로 지난해 114명보다 83명이 증가했다. 표창대상자 토익 기준 평균점은 중학생 890.29점, 고등학생 823.42점이다.

올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중학생 최고점은 토익(TOEIC) 990점 만점에서 980점을 받은 김미지(목포항도여중)양, 고등학생 최고점은 토익 985점을 받은 이예진(여수여고)양이 차지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학생들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향상된 것은 원어민 교사 배치(254명)를 통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과 전라남도 외국어연수 프로그램(JLP), 영어캠프 등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협약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오른쪽)는 지난 4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지사장 이대원·이하 공단)와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된 사회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구직상담·직무적성검사 지원·취업지원설명회 등를 통해 진로지도를 하는 한편, 구인정보 제공·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통한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또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을 통한 공직진출 지원, 맞춤 훈련을 통한 대기업 취업 지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 지원, 장애학생의 직업 재활 지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대는 전담 직원이 배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세우고, 장애학생 현황과 정보를 파악해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취업 관련 행사에 장애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장애학생의 직업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장학재단 기숙사 협약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가 기숙사 건립에 지자체들의 기부를 받고, 출신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최근 이강수 고창군수와 지역협력생활관 건립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이 군수가 이사장인 고창군장학재단은 올해 안에 조선대 내 생활관 건립기금 1억원을 기부하고 조선대는 생활관에 '고창군 협력생활관'이라는 현판을 부착, 고창군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우선적으로 공간을 배정한다.

조선대 제2공학관 뒤편 부지에 건립되는 생활관〈조감도〉은 건평 1만7천여㎡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남녀 2개 동이 들어선다. 1인2실 500실로 남학생 500명, 여학생 500명을 수용하며 중앙냉난방, 개별욕실, 전용식당, 독서실, 그룹 스터디실, 세미나실, 다용도휴게실, PC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조성되며 2010년 입주 예정이다.

조선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남 22개, 전북 4개 지자체에 지역협력생활관의 취지를 알리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호남대생들 일본 호텔 인턴 연수 현장

후쿠시마현 쇼우스케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호남대 학생들이 호텔 관리자 이츠코(한가운데)씨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다희, 문현아, 이츠코, 김유정, 김지현씨.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점 따고 업무경험도 쌓고 "사회생활 자신감 얻었어요"

호남대학교 졸업반인 양동주(24·조리정보학과 4년)씨의 꿈은 한국 최고의 일본 요리사다. 전에는 그저 막연히 일급 요리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지만, 호남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일본호텔 인턴십에 참가하면서 꿈이 더 구체화됐다.

15명 5개 호텔서 현장 교육

양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일본 동북지역의 온천지구인 야마가타현 자오의 고쿠사이호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다 일본어도 서툴러 뭐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아직은 당근이나 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주업무. 일본어가 익숙지 않아 주방장의 주문에 엉뚱한 일을 하기 일쑤여도 배우는 일이 마냥 즐겁다.

양씨는 "호텔의 위치가 워낙 시골이어서 절간에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만 인턴십을 마치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얻은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 와 제대로 일본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총지배인 곤노(59)씨는 "일본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군대를 다녀 와서인지 인사성이 바르고, 뭐든 하려는 의욕이 넘쳐 보기 좋다"며 "주방의 활력소"라고 말했다.

4학년 한 해는 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호남대의 '3+1'제도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씨와 같이 올해 일본의 호텔에서 인턴십을 하는 4학년들은 모두 15명. 조리를 비롯한 호텔경영, 일본어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일본 내 5개의 호텔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경쟁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출국하기 전 3개월 동안 일본어 및 문화소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지난 7월부터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츠의 쇼우스케호텔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김다희(23·일본어학과 4년)씨 등 4명은 그래도 양씨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힘들 때면 한국어로 수다를 떨 상대라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호텔에서 로비 손님 맞이와 안내, 식당 세팅 및 서빙 등을 주로 한다.

대부분 외국 생활이 처음인 이들의 어려운 점 역시 언어와 문화 차이였다. 문현아(21·호텔경영학과 4년)씨는 "손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헤맬 때는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를 좀 더 할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말했다. 교사가 꿈인 김지현(25·일본어학과 4년)씨는 "뭔가 궁금해 물어봐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고 체득하도록 놔두는 것이 교육방식인 듯한데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 때문인지 일본인 관리자들의 반응은 대개 호의적이다. 쇼우스케호텔의 인턴십 담당 이츠코(여·28)씨는 "꽤 빡빡한 스케줄인데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도 호남대 인턴십 학생들을 더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실하다" 일본인들도 반겨

이들 15명은 6개월을 채우는 내년 2월께 한국으로 돌아간다. 호남대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40명 규모의 일본호텔 인턴십을 파견할 계획이다.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월 30만원의 장학금, 학점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학교 측이 인턴십을 위해 지출하는 한해 예산은 산학협동장학기금을 포함해 1억7천여만원이다.

호남대 인력개발센터 윤천균(47) 실장은 "인턴십 경력을 살려 현지 호텔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인턴십을 통해 취업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있어 자신감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마가타·후쿠시마=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